

때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함에도 실망과 좌절,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9)”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가족, 우리와 공동체, 이웃을 향한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사랑과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 또한 유지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하루 하루 쌓이고 쌓여 마침내 회복된 삶과 일상 속에서 서로를 맞이했을 때 명절보다 더 풍성함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계절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 온 세상을 풍성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6)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7)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 추석 기징예배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6:1)



예 배 순 서

■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1-5

이 시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지겠습니다.

1)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2) 찬 송 ----- 550장 ----- 다 같이

-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3) 기 도 ----- 대 표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도 참 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릴 지켜주시고 부모와 형제 간 건강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릴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본을 보이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는 서로의 삶을 보살피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성경봉독 ----- 갈라디아서 6:1-5 ----- 다 같이

-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명절하면 떠들썩하고 즐겁고 풍성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코로나, 산불과 수해, 자연재해 등 끝나지 않은 고통의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는 우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 주변 가족과 이웃에 어려운 일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신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와 이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5)”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짐을 누군가 지어 주겠지 하는 생각에 나태하거나 불성실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려는 태도와 행동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가족과 이웃의 도움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1)” 꼭 범죄가 아니라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세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격려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약한 모습은 약한 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셋째,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2)” 건강을 잃고, 마음이 낙심하고, 경제적 곤란에 처하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공감의 자세, 격려의 말, 기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돕는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7)” 누군가 어려울 때 사랑과 섬김을 심으면, 내가 어려울 때 사랑과 섬김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8)” 이기적인 대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은 육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